

1월의 기도



2024년에는...

- 모든 것이 평온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북한의 핵무장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독재에 자유가 맞서 이긴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종식됨으로 세계에 암울했던 환경이 사라지고 예수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들에게 퍼져 나감으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휼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는 또 하나의 원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새해에 새 이름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듣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20)

오늘 아침 새해의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며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 산다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을 창조와 승리와 복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주어진 날들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언제나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혜롭게 붙여 주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즉 성격과 운명을 규정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미가 급하고 거칠며 변덕이 심한 한 남자를 만나셨는데, 그의 이름은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 즉, '반석'이란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과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에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루'라는 시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붙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새해에도 이름을 붙여 주면 새해의 성격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 아담에게로 짐승을 이끌어 가서서 그 이름 짓는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 짓는 광경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an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새해를 열며



새해가 찾아왔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송구영신'(送舊迎新). 한자가 그대로 풀면 "묵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옛 관가에서 전임자를 보내고 후임자를 맞이하는 것이 그 유래다. 현재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라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여기서 같은 음으로 읽지만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뜻의 '송구영신'(悚懼靈新)이다.

송구(悚懼)는 '죄송하다'는 뜻이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언제나 참 송구하다. 사랑과 충성으로 행하지 못하고 게을러 열심을 내지 않았던 일, 참지 못해 용서치 못하고 절제하고 감사치 못한 일들이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다고 인정하는 '송구'의 태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영신(靈新)은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영(靈)은 마음이고 생각이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 바뀌지 않으면 몸도 변하지 않는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꿈을 꾀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도록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꿈이 있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엇이 이뤄질지를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꿈꾸고 소원이 이뤄질 것을 믿으면 좋은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분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꿈과 소망을 가질

일평생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조용기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하게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4차원에 속한 사람이 되면 영이 새롭게 되어 꿈과 생각과 믿음과 말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새해에는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진실과 성실,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영이 변화된다면 스스로 달라지고 주위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분명히 달라진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새해라는 시간의 흐름 앞에 DCEM은 많은 가치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의 송고한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께 가르침 받은 4차원의 영성을 토대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횃불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복음전파의 선교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전세계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이어나갈 것이다

"사람은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교회를 잘 다녀야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배울때 변화 되고 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헛일 입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면 이 사회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2019년 신년대담 중, 故 조용기목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보혜사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편 16절-17절)

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 생존할 수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돕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보혜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그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요 14:16)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헤테로스’와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알로스는 두 개가 똑같은 것인데 또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첫 보혜사와 완전히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2.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배운 것들도 성령께서 필요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이런 흉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불의와 불법과 온갖 추악함을 가져오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다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치는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오늘날도 병이 물러가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만리장천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 주고 산 성전인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점령하시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차원의 영성(1)

- 생각 -



는 육신은 비록 3차원에 속해 있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4차원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2. 4차원의 영성의 근거 -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된 전인적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구원받은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 버렸다. 신자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종복음과 삼중 축복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과 축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영적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다. 4차원의 영적 원리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현실화된다. 그중에서도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놓는 첫 번째 관문이다.

1. 4차원의 영적 세계와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이다. 이에 비해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영적 세계이다. 영적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차원이 높으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물질적인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역시 단순히 물질적인 에너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창 1:2, 히 11:3).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대변되는 3차원에 속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4차원적인 영적 존재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

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건강과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료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요, 부활과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제 신자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이루신 전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보혈에 근거한 축복의 생각은 신자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준다.

3. 4차원의 생각과 복된 삶

우리가 3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4차원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3차원적인 삶에 4차원적 영적 세계의 변화가 다가오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늘 하

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한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접붙이면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죄 의식, 연약 의식, 실패 의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건강과 부요와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축복 의식, 승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해야 한다. 새사람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미움, 공포와 불안, 두려움, 좌절과 슬픔, 죄악과 세속에의 욕망과 맞서 싸워야 한다. 죄 짓고, 병약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건강과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생각’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옛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긍정적, 창조적, 생산적인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 새사람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한 새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다.

